



서울로타랙트클럽 창립

서울삼청RC 스폰서, 로타랙트 활동경험이 있는 서울 소재 대학원 및 직장인 37명으로 구성, 향후 로타리안 활동 기대

서울삼청로타리클럽(회장 최인훈)은 지난 2017년 9월 16일(토) 퍼시픽호텔 2층 남산룸에서 [서울로타랙트클럽]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서울삼청RC 최인훈 회장과 이재후 초대회장, 이우식 직전회장 등 삼청로타리클럽 회원들과 김중 10지역대표, 박상진 신세대위원장, 김민테 로타랙트위원장 등 지구임원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서울로타랙트클럽 창립 회원 및 3650지구 로타랙트 지구대표 및 임원, 3661, 3600, 3750지구 등 타지구 로타랙트 지구임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서울로타랙트클럽의 창립을 함께 축하했다. 또한 이순동 총재, 문은수 RI이사, 정주화 한국로타리청소녀연합 이사장, 송원규 새한양 RC 회장이 축하화환을 보냈고, 이안 라이즐리 RI회장, 개리 후앙 전RI회장 등 세계 로타리 및 로타랙트 국제 리더들의 축하영상 메시지를 보내 의미를 더했다. 서울로타랙트클럽은 판태호 회장을 비롯하여 37명의 회원으로, 주로 국제 교류를 통해 해외 로타랙트클럽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대학을 졸업해 서울 소재 회사를 다니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국내외 로타랙트클럽 출신 남녀 회원들로 구성됐다.

서울삼청로타리클럽과 서울로타랙트클럽은 '앞으로 로타리안과 함께하는 로타랙트가 되도록 서울삼청RC가 실시하는 모든 행사 및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로타리안과 로타랙트간의 잦은 네트워킹을 통해 장차 로타리 가입의 동기를 부여 받고 멘토-멘티 관계가 되어 여러 사회적인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서울로타랙트 활동 회원 중 30세가 넘으면 반드시 로타리안으로 입회 (위성클럽 또는 서울삼청RC 회원) 하여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로타랙트클럽

정기모임 :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 명동 퍼시픽호텔
이메일 : seoulrac@gmail.com
홈페이지 : www.fb.com/seoulrac
가입문의 : 총무 홍대기 010-2468-3326

제4회 로타랙트 멘토링 데이 개최

3650지구 선후배 로타랙터 40여명 참가, 취업 준비와 정보교류의 장 마련



국제로타리 3650지구 로타랙트 선후배들이 함께 '취업과 소통'을 주제로 마련한 '제4회 로타랙트 멘토링 데이'가 지난 9월 10일(일) 한양대학교에서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2005-06년도 로타랙트 지구대표를 역임한 강민성 전 지구대표(서울남만RC 회장, LG이노텍)를 중심으로 사회에 진출한 10명의 로타랙트 전직 임원 및 클럽 회장 출신들로 구성된 멘토들은 두달 전부터 이 행사를 기획했고 이날 40여명의 3650지구 각 로타랙트 클럽 재학생들이 멘티로 참가하여 취업과 소통을 주제로 멘토링 행사를 함께 했다.

학년, 전공에 관계없이 로타랙트 선후배들이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취업 준비에 도움을 드리는 행사가 기획한 이번 멘토링 데이에는 취업 노하우와 준비자세, 사회진출 후 계획 등에 대해 멘토들의 강연과 조별 대화의 시간들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에는 2017-18년도 로타랙트 지구임원(대표 김재정)들이 행사 준비를 지원했으며, 전직 로타랙트 지구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직 로타랙터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등 10년 터울의 로타랙터 선후배들이 함께 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3650지구 로타랙트 멘토링데이는 지난 2014년부터 4회째를 맞고 있으며, 이 행사를 계기로, 지난 2015년 10월 로타랙트 출신들로 구성된 서울남만 로타리클럽이 창립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3650지구 로타랙트 연합 11개 클럽 130명,
- 고려대, 덕성여대, 무악, 숙명, 숭실, 세종, 한국외대, 연세, 이화여대, 중앙, 태릉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 서포터즈 활동



3650지구 로타랙트 연합 11개 클럽(고려대, 덕성여대, 무악, 숙명, 숭실, 세종, 한국외대, 연세, 이화여대, 중앙, 태릉) 130여명의 로타랙트 회원들은 지난 9월 8일 한강 고수부지 일대에서, 한국 생명의 전화에서 주최한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에 서포터즈로 활동하였습니다.

고려대 로타랙트클럽(후원 서울북악RC)의 주도로 참가하게 된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은 자살예방 캠페인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행사였습니다. 서포터즈에는 많은 역할이 있었지만 저희 고려대 로타랙트에서는 5km 걷기 페이스 메이커를 담당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마포대교를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넘어 많은 생각을 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가자가 무려 5,000명이 넘었지만 많은 좋은 말도 듣고 직접 참여하여 느낄 수 있어서 의미 있었던 봉사였습니다. 그중에 'You are not alone' 이라는 표어가 가장 와 닿았습니다.

글. 고려대 로타랙트클럽 회장 김준석



2017-18 인터랙트 지도교사 협의회 2차 모임 개최

2017-18년도 인터랙트 지도교사 협의회 2차 회의가 9월 26일 박상진 신세대위원장, 김재철 사무부총장, 경희수 인터랙트 위원장 등 지구임원들과 차상우 인터랙트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등 10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 사무국에서 개최됐다.

이 날 모임에서는 2017-18년도 인터랙트 지구대회 겸 (가)인터랙트 워크숍을 2박 3일 일정으로 오는 2018년 1월말에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논의했고, 11월 4일 김장나눔봉사활동 참가와 인터랙트 대만, 일본 등 해외 교류사업 실시, 인터랙트 지도교사 모임의 정례화 및 로타리 모임으로의 확대 등 금회기 인터랙트 사업의 새로운 계획과 비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연세 로타랙트클럽, 후원클럽인 한양RC 회원들과 추석맞이 교류 '연고대 정기전' 연세대 · 고려대 로타랙트클럽 함께 관람, 응원



연세대 로타랙트클럽(후원 한양RC)은 9월 21일, 후원 로타리클럽인 한양로타리클럽 최경순 회장께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시어 회원들을 위한 동아제약 박카스 세트(약 200병)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로서는 너무나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한양로타리클럽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는 동시에 연세로타랙트클럽에 대한 덕담 또한 아끼지 않으셨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한 임원들 모두가 회장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9월 22일~23일, 연세로타랙트가 단체로 연고전 경기관람을 다녀왔습니다. 회원들이 열심히 응원해준 덕에 5대0이라는 연세 역사에 있어 전무한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글. 연세대 로타랙트클럽 회장 김동휘

